



주 제:	“너희에게 평화를”	“부활 제 6 주일” (다해)	2007년 5월 13일
복음 묵상:	요한 14,23-29	사도 15,1-2,22-29	묵시 21,10-14,22-23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화와 성령을 남겨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즉, 십자가상 죽음의 길로 떠나게 되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내려 주십니다. 평화는 전쟁이 멈춘 상태와 같은 평화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처하시는 예수님 바로 자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권력과 부귀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이웃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행위를 통해 누리게 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결국, 당신의 삶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평화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김지영 사무엘 신부·미아3동성당)

### 성가대 소식

1. 금주부터 30주년 음악제 준비를 위한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곡목은 김희조 편곡 “응혜야” 인 우리 민요입니다.

### 2. 가족 동정

- 최효원 도미니카 자매님 4/24 2주간 여정으로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 윤안도 요셉 형제님 4/24 일 3주간의 여정으로(5/15 도착예정)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 조병화 솔로몬 형제님 4/20(금) 3개월 예정으로 한국으로 나머지 정리 차 떠나셨습니다.
- 구영조 요한 형제님 5월 15일 중순경 한국으로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말없이 입단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불연듯 떠나시게 되어 모든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행중이신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3. 기도 요청

- 최창식 세바스찬님(최엘리사벳 시부님)께서 팔수를 맞으셨습니다. 축하 드리며,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길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김인숙 세실리아 자매님, 심한 기침 알레지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중에 빌어주십시오.

+ 복음 [요한 13,31-33 14,34-35]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 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 주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었거니와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 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니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1분 명상

♥ 사랑은 줄수록 아름답습니다. ♥



사랑은 줄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받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하지만  
사랑은 줄수록 내 눈빛이  
더욱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한없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  
하염없이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  
시리도록 기다리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건  
주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

끝없이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일어나 웃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

변함없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다시 내일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가톨릭 용어사전

몬시뇰(MONSIGNOR)

교회는 인간의 단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성직의 계급을 만드셨다. 이를 교계라고 하며, 이를 크게 나누면 교황과 주교와 신부와 부제이다. 그런데, 몬시뇰은 주교와 신부 사이의 교등 성직 계급이다. 기원은 1308년 ~ 1378년 사이에 프랑스 아비뇰을 임시 교회 수도로 정하여 교황이 머무를 때에 교황의 보좌관 및 시종들을 몬시뇰이라고 부른 데서부터이다. 그 후 교황청 고급 관리로서 추기경이나 주교가 아닌 일반 신부에게 적용되는 칭호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부주교, 또는 전통 있는 본당 신부나 오랜 성직 생활로 교회에 공이 큰 원로 성직자에게 교황청에서 주는 명예의 칭호이다. 교회법상 특권은 없다. 의식 때 수단 위의 빨간 띠를 두르거나 단추를 달 수 있다.